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123

『무정』에서의 숭고와 욕망의 문제

박 진 영*

요 약

이광수의 『무정』은 근대형성기 세속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문명진화의 이상을 향한 염원과 개인의 사적 욕망 간의 갈등을 재현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이 글은 『무정』의 독특한 이중성, 애정서사에 기반한 대중적인 통속성과 민족구원을 위한 자기희생의 숭고미의 공존에 주목하였다.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무정』의 서사적 상황에서 숭고에의 지향과 세속적인 것의 공존이야말로 『무정』이 갖는 근대성을 적실히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다.

칸트에 의하면 숭고는 우리가 평소 배려하는 재산, 건강, 생명과 같은 일상의 가치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신적 관념체로, 무한이라는 이념을 감지하는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 『무정』의 형식·영채는 자기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결한 정신성을 입증하려는 인물이며, 외부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 근대적 자아의 각성은 과거와 절연하고 새롭게 전신(轉身)하는 고양의 언술로 채워진다. 『무정』에서의 "무정한 세상"을 "유정하게" 만들고 잠자던 "속사람"이 깨어 "참생활"을 하는 계기는 숭고함에의 열망을 동력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광수는 영채의 몸값 "천 원"을 통해 금력이 지배하는 근대적 세계의 단면을 무정한 것으로 그린다. 영채는 평양에 갈 여비 "오 원"이 없어 울지만, 역시 "오 원"이 없어 이를 빌리려던 형식은 결국 김장로의 돈과 지위를 선택한다. 물질과 부의 증대는 문명의 발전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며, 세속화 또한 전근대적 봉건사회에서 근대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 고려대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이 글은 『무정』에서 돈과 욕망을 중심으로 한 세속화의 흐름과, 문명진화를 향한 민족계몽의 이상이 어떻게 접합 및 결렬되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이광수, 무정, 숭고, 세속화, 돈, 욕망

목차

1. 들어가며
2. 숭고한 것으로서의 문명진화와 자아각성
3. 세속화: '구원'과 '돈'의 관계를 중심으로
4. 나가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근대적 개인의 사적 욕망과 계몽이념이 표방하는 공적 가치의 길항이 『무정』의 서사적 기본 축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무정』에 나타나는 숭고와 욕망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무정』은 조선 제일의 선각자임을 자처하는 형식의 계몽의지와 근대인으로서의 각성을 특유의 생명론, 우주론을 통해 숭고하게 다루는 반면, 영채의 처녀성에의 집착과 출세에의 바람을 가감 없이 현시하기도 한다. 그간의 『무정』의 선행연구가 기본적으로 민족갱생의 공동체적 이상과 자유연애의 고취라는 사적 감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할 때[1],

1) "『무정』은 청년 연애의 감성과 더불어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연애에 대한 열정과 민족갱생을 위한 운동이야말로 이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광수는 '연애'라는 사적인 감성과 '민족'이라는 공적이 감성이 연동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주창했던 '정'의 문학을 작품 속에 시현하고자 했다."(이만영, 「근대적 읽기 관습의 창출과 계도

이 글은 그러한 이상과 감성의 균열, 혹은 '민족'과 '개인'의 거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무정』에 나타나는 세속화와 반세속화의 관계[2], 혹은 "인류애를 열정적으로 추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사적의 것의 가치"[3]를 재고하는 작업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무정』에서 특이한 것은 민족계몽을 위한 조선청년의 사명, 공적인 것을 위한 자기희생의 정신이 숭고하게 다뤄지는 동시에, 개인의 욕망·감각이 인물을 지배하는 양상뿐 아니라, 주인공 형식의 내적 미숙함을 비판하는 서술자의 목소리 또한 빈번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형식은 영채의 자살을 만류하러 평양에 가지만 막상 어린 기생 계향에 이끌리고, 돌아오는 기차에서는 죄책감보다는 자아각성의 황홀경을 맛본다. 이밖에도, 공적 가치에의 헌신 이면에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4], 학생들을 "전심력을 다하여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목숨의 뿌리를 잃어버린"(278면) 사건, 부산행 열차에서 영채와 해후한 후 형식이 보이는 "노보새(上氣)"한 반응, 조선제일의 선각자라는 자부심 이면의 교만한 우월감, 계몽의 총화가 실현되는 삼랑진 장면에서 생물학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를 연구하겠다는 "불쌍"한 신세 등. 소설 결말에 이르러, 선각자임을

적 미학의 길」, 『센티멘탈 이광수—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421면)

2) 『무정』은 세속화의 범례가 되는 소설이지만 그와 동시에 반세속화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텍스트다. 일례로 '생명론'이라 불러도 좋을 기차 안에서의 신비체험에는 진화론과 범신론이 결합되어 있다. (…) 진화, 진보, 모더니티라는 세속화 테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범신론적 우주를 인유(引喩)하는 것이다.(이철호, 「세속화 이후의 한국문학—기독교, 모더니티, 우주」, 『문학과 사회』 27, 2014.11, 442-443면)

3) 손유경,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4, 275면.

4) 신성환, 「'무정'의 세 가지 연애담, 이성애와 나르시시즘-'무정' 새롭게 다시 읽기의 한 방법」, 『한국언어문화』 6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4.

자신했던 형식 자신마저 "어린애"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역설 속에 희생과 구원의 의미는 내적으로 부정되는 셈이다.

이 글은 『무정』에 이렇듯 좌절과 실패의 사건을 곳곳에 배치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의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족구성원 모두가 미성숙한 "과도기"의 역사적 상태에 있음을 예시하기 위함인가. 혹은 대의와 당위보다는 욕망과 존재를 긍정하는 근대성의 반영인가. 이 글은 이러한 비일관성의 중심에 형식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겪는 감정의 역동적 흐름, 파토스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달리 말해 그것은 "감정은 반드시 숭고한 의지와 결합되어야 했"[5]던, 도덕적 관점에서의 감정교육과는 다른, 합리적 이성과 도덕관념의 통어를 벗어난 욕망과 감정의 문제가 『무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의 연구사에서 그러하듯이, 계몽의 서사를 『무정』의 지배담론으로 볼 때 '계몽 주체'의 내적 오류와 결함이 지나치게 많고, 그렇다고 '낭만적 자아'로 보기엔 민족계몽의 이상이 무정의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다양한 방향에서의 연구 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무정』 100주년을 기념한 이후에도 『무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다. 그것은 이광수라는 작가의 여러 얼굴과 더불어[6] 보다 궁극적으로는 '근대'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에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7]

『무정』의 숭고 분석에 있어 이 글은 주로 이상을 실현하려는 주

5) 김지영,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3, 96면.

6) 그것은 작가 이광수의 "영욕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삶의 이력"만큼이나 텍스트 또한 "서로 충돌하는 상반된 힘의 알력", 강렬한 아이러니의 힘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영채, 『죄의식과 부끄러움』, 나무나무, 2017, 53면)

7) 오영록, 「1960년대 문명조선(文明朝鮮)의 진단과 전망」, 『비평문학』 49, 2013.9, 263면.

체의 자유의지와 정신적 고양 상태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무정』의 숭고 지향성이 다음 두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기 때문인데, 조선의 문명진화라는 민족적 이상을 향한 염원과 의지가 그 하나라면, 형식·영채를 비롯해 선형, 우선, 기생 어미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각성과 갱생의 모티프가 다른 하나다. 무엇보다도 『무정』의 전체 서사에서 자기희생과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숭고성 일반을 살필 수 있다. 희생과 구원은 개인의 사익과 자기 보존 대신 공적 대의와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범속함의 굴레를 뛰어넘게 한다. 내면의 초월성을 깨닫고 무한을 감지케 하는 각성의 모티프에서는 충일된 정신 작용의 고양이 그 중심에 놓인다. 『무정』에서 특히 외부의 도덕률에 구속되지 않는 근대적 자아의 '각성'은 과거와 절연하고 새롭게 전신(轉身)하는 고양의 언술로 채워진다. 요컨대 『무정』에서의 "무정한 세상"을 "유정하게" 만들고 잠자던 "속사람"이 깨어 "참생활"을 하게 하는 변전의 계기는 숭고함에의 열망을 그 동력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상당한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는 『무정』을 다시 읽기 위해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숭고를 향한 집념과 세속화된 개인의 욕망이 충돌·길항하는 양상이다. 그간의 『무정』 연구에서 '정(情)'의 문학론과 계몽 담론이 충분히 다뤄진 반면, 형식과 선형, 영채의 생활세계를 이루는 욕망과 돈의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혹은 '정(情)'의 문제에 있어서도, 『무정』 특유의 각성과 감화의 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지정의(知情意)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의 가치를 주장하고, '정'과 '문학'과 '문명'의 비례관계를 상정했던 이광수에게 있어[8] 좁은 의미의 감정교육은 '정'의 주창뿐 아니라, 감정의 역동성이 만들어내는 변화·생성의 의

8)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10, 91면 참조.

미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 『무정』의 "사건의 전개가 인물들의 각성이나 해방, 교훈 체득 등으로 이루어진다."[9]고 할 때, 『무정』의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정(情)의 작동으로 인한 '각성'과 '갱생'의 드라마인 것이다. 이 글은 요컨대 『무정』에 나타난 일련의 숭고 지향성과 속물적 욕망의 공존을 분석함으로써 『무정』을 새롭게 읽고자 한다.[10]

2. 숭고한 것으로서의 문명진화와 자아각성

먼저 숭고란 무엇인가. 숭고(崇高)[11]란 일차적으로 고귀함, 비장미를 뜻하는 미적 개념이자 초월적인 것, 고양시키는 것, 신비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한다. 범속함과는 거리가 먼 이 정신적 태도는 흔히 고양된 사상, 드높은 주제, 공포와 경외 등과 결부되어, 정신의 고양을 통한 탁월한 전범에의 도달, 단일성을 모방하도록 이끄는 움직임, 일체감을 유발하며 종합되는 것으로 일컬어져 왔다.[12] 높이 상승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9) 박상준, 「『무정』의 계몽주의 재고」, 『동남어문논집』 38, 동남어문학회, 2014, 7면.

10) 이 글은 『무정』(문학과지성사, 2005)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용은 이 책에 근거해 면수만 밝힌다.

11) 우리말 '숭고(崇高)'는 '높다', '높게 하다', '존중하다', '뽐내다'라는 뜻이 있다. 숭고를 뜻하는 독일어 'das Erhabene'는 'erheben'에서 유래하며, '높이다', '존중하다', '빈틈없이'라는 뜻이 있다. 숭고는 누구든 경험의 기대치를 벗어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마땅히 표현하기 어려운 불쾌한 감정 상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소 고양된 복합적인 감정이다. 자아분열과 혼돈, 추(醜)는 숭고를 구성하는 기본 감정들이다. 숭고는 감정을 정신작용으로 순화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감정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규정적인 것이다.(김종대, 「칸트의 숭고미에 대해」, 『외국문학연구』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04면)

12) 장-뤽 낭시 외, 김예령 옮김, 『숭고에 대하여: 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 문

시야를 획득하는 순간이야말로 숭고성의 지점[13]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높음, 고결성, 위대함 등이 전통적 숭고미학의 요소를 이루어 온 것이다.

하지만 숭고는 웅장함, 거대함과 같은 크기와 높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숭고는 자연물과 같은 외부대상뿐 아니라, 판단 주체의 마음과 관련해 논의된다. 칸트에 의하면 숭고는 무한이라는 이념을 감지하는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14] 공포의 위력을 지닌 대상이 인간의 정신력을 일상적인 범상한 것 이상으로 높여줄 때, 우리 내부의 저항능력은 자연의 외관상의 절대력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일으켜준다.[15] 그 용기와 힘은 우리가 평소 배려하는 재산과 건강과 생명 따위를 작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힘이며, 우리의 사명(使命)의 고유한 숭고성이 자연보다도 우월함을 스스로 감지하게 해주는 감격적 만족을 뜻한다.[16] 다시 말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정신적 고양은 카타르시스와 함께 숭고를 경험하게 해준다.[17] 자아 내부에 깃들어 있는 초월성을 깨닫는 한계 체험이야말로 그 한 예이다. 미의 판단에서의 차분한 관조 상태와 달리, 숭고에서는 심정의 격동을 겪는다 할 수 있다.

『무정』에서 문명진화는 서사적 현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조선의 미래상에 대한 염원과 기대를 중심으로 제시되는데, 이광수는 이를 분명한 가치함축을 지닌 것으로 다룬다. 『무정』은 주지하듯 1910년대 후반의 근대형성기를 배경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부국강병을 이

학과지성사, 2005, 27-32면 참조.

13) 위의 책, 18면.

14) 한동원, 「칸트 철학의 숭고에 관한 연구」, 『철학』 54집, 한국철학회, 1998.3, 79면.

15) 위의 책, 129면

16) 위의 책, 130면.

17) 제시불가능한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벤야민은 숭고를 '일체의 미를 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뤄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 문명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형을 만나러 김장로의 집을 찾아가는 첫 장면에서 미국유학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측면에서 『무정』의 인물들을 내적으로 결속·동화시키는 것은 민족적 소명과 이상이다. 여러 극적인 사건의 얽힘에도 불구하고 『무정』의 서사는 결국 다섯 젊은이(형식·선형·영채·병욱·우선)의 갈등관계를 일거에 해소하는 정신적 일체화로 귀결되는데, 그 직접적 계기는 주지하다시피 홍수라는 대자연의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양과 감정적 정화이다. 삼랑진수해는 특히 거대한 물의 위력을 '자선음악회'의 예술적 형식으로 무화·해소한다는 점에서 인간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무정』 전편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정신적 고양과 합일, 혹은 문명진화라는 전범에의 도달을 목표로 하는 '이상한' 열기이다. 정육론에 기반한 『무정』의 근대적 계몽은 문명진화의 대의 그 자체보다는 계몽에 깃든 감정적, 정서적 고양과 깨달음의 과정에 보다 집중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때 먼저 점검할 것은 고양이 확장 내지 과장과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다. 고양의 언술은 과장의 동의어가 아니다. 웅장한 것, 거대한 것의 재현이 곧 숭고는 아니기 때문이다.[18] 거대함, 무한함, 순수함이 그 크기만을 강조하거나 절대화될 때, 숭고는 절대적 일자가 극화된 의사숭고의 세계로 전도되기 쉽다. 그렇다면 『무정』으로 돌아와, 개인의 안위와 이익 대신 이상을 위해 매진하는 정신은 위대하며, 숭고에 근접하는 것인가. 형식과 영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희생과 헌신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살피기로 한다.

형식은 고결한 정신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우선에 의하면

18) 숭고에 있어 중요한 정신적 '고양'은 팽창과 양적인 번성을 통해 통합을 달성하려는 사유의 움직임인 '확장' 내지 '과장'과는 다른 개념이다.(위의 책, 19면)

그는 "세상을 장난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디까지든지 인생을 엄숙하게 보려" 한다. 인생을 "희롱"이나 "장난"으로 보지 않고 "마지메"(468면)하게 생각하는 그는, 배명식에 의해서도 "흥, 무론 노형은 고결하시지요, 성인이시지요. 백이숙제(伯夷叔齊)시지요."(275면)라며 그의 엄숙함을 조롱받는 가운데 정신력의 우위를 인정받는다. 형식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위해 "열렬"하게 애쓰는 "이상(理想)의 인(人)"(270면)이다. 『무정』에서 그의 헌신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계몽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 그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의 살아날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 가장 문명한 모든 민족—즉 일본 민족만 한 문명 정도에 달함에 있다 하고 이리함에는 우리나라에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기를 이런 줄을 자각한 자기의 책임은 아무쪼록 책을 많이 공부하여 완전히 세계의 문명을 이해하고 이를 조선 사람에게 선전함에 있다 하였다. 그가 책에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재주 있는 학생을 극히 사랑하며 힘 있는 대로 그네를 도와주려 함도 실로 이를 위함이라.(98면)

동경유학 출신의 경성학교 교사 형식은 자신을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한 사상을 가진 선각자로 자신"(268면)하며, 자신의 현재 생활을 "자기의 진정한 생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임시의 생활, 준비의 생활"(98면)로 생각한다. 형식이 자각한 그의 책무는 서구유학을 통해 진보한 문명사상을 습득한 후 이를 조선 사람에게 선전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공사로 워싱턴에 주재했던 김장로의 "서양식 생활", "서양식으로 차려놓은 방"(302면)은 속이 텅 빈 껍데기의 흉내에 불과하다. 서양문명의 내용, "복잡한 신문명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무식"에 비해, 형식은 "일한서방에 가거나, 동경 마루젠 같은 책사에 사오 원을 없이하여 자기의 책장에 금자 박힌 책

이 붇는 것을 유일의 재미로 여"(98면)긴다. 뿐만 아니라 "몇 푼 아니 되는 월급을 저축할 생각은 없이 제가 쓰고 남는 돈은 가난한 학생에게 나눠"준다. 형식에겐 "열렬하게 세상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는 열성"(181면)이 있다. "형식은 인생에게 무슨 뜻을 캐내려 하고 세상을 위하여 힘 있는 데까지는 무슨 공헌을 하고야 말려 한다."(180면)

이러한 열정과 헌신은 외양의 흉내에 치중할 뿐인 개화인사 김장로나 얼뜨기 지식인 배명식과 달리, 형식의 '고귀한' 영혼을 입증해 준다. 이밖에도 박진사, 함상모 교장은 그 방식은 각기 다르되 문명개화에의 꿈을 대변하는 시대적 지식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의 사명감과 교육열은 높고 굳고 바르다. 형식과 영채가 그 속성을 분유하기라도 한 것처럼[19], 이들은 공동체의 이상을 위한 전념과 투신으로, 구국계몽에의 염원과 자기희생으로써 정신성을 체현한다. 『무정』에서 이들은 (영웅형 인물의 잔재라기보다) 그 방법은 다르더라도 자신의 정념을 위해 열렬한 삶을 산다. 박진사의 절식자살과 평양기생 월화의 자살, 영채의 자살 결심에 이어, 다른 한편, 선형, 우선, 기생어미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감화와 고양의 정신작용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민족의 계몽이든 참사람으로의 갱생이든, 이들에겐 정념과 결기가 넘쳐난다.[20] 박진사를 구하려 기생이 되고 정절을 잃자 자결을 결심하는 영채도 그러하지만, 형식의 열정과 헌신은 특히 『무정』의 다른 인물들을 압도하는 인자이다. 반면 배명식, 김현수, 기생어미, 김장로에겐 정신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

19) "영채와 자기와는 이상하게 같은 운명을 지내어오는 듯하다 하였다."(218면)의 고백에서처럼, 이 둘은 결연한 의지와 숭고한 정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쌍생아에 가까운 것이다.

20) 유약하되 정직한 청년 이형식이 지닌 계몽의지는 현실세계에서 구체적 실현 방법을 수반하지 못한 채 '정념'으로서만 작동한다 볼 수도 있다.

형과 우선 역시 삼랑진 음악회에서의 '개심' 이전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때 『무정』에서 중요한 것은 두 주인공 형식과 영채를 통해 주로 표현되는, 자기이상과 이념을 향한 정동(情動)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가 이광수는 이를 일차적으로 존엄하고 고귀하게 다룬다. 이광수가 "인성(人性)의 본(本)"은 "인(仁)"이나 "애(愛)", "선(善)"이 아니라 "욕망"과 "의지"라고 언급한 바대로, 『무정』에는 생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자연스럽게 강조되어 있다.[21] 구시대의 도덕관념을 넘어, 이광수가 강조한 넓은 의미의 '생명주의' 내지 전근대인에서 근대인으로의 '개체진화'[22]는 자유로운 개인적 정신을 추구하는 숭고의 전통에서 볼 때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일상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이라는 숭고 개념의 철학적 요소[23]가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자유 지향성을 설명해준다면, 『무정』에서 이는 주로 자아의 각성, 자아의 발견으로 발현된다 할 수 있다.

『무정』에서 교육은 특히 신진문물과 신지식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외부적 자극을 통해 자기 내부의 생명이 지닌 잠재성을 끌어내는 데에도 일조한다. 형식이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학과 지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연유하기도 한다. 형식과 병욱이 그나마 일본 근대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각성이 수월했다고 할 수 있다.[24] 형식은 김장로의 집에서 예수 그림을 처음 봤을 때와, 평양에서 경성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자아각성을 경험한다. 형식은 문명개화한 서

21)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옮김,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82-83면.
22) 오윤호에 의하면 형식은 다섯 번에 걸쳐 개체진화를 한다.(오윤호, 「근대 과학지식의 재현과 진화론적 상상력」, 『한민족문화연구』 52, 한민족문화연구회, 2015.12, 297면 참조)
23)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55면.
24) 오윤호, 위의 글, 299면.

구에 비해 낙후된 조선현실에 대한 근심과 영채를 구원하기 위한 "천 원"을 염려하는 가운데, 일상에 예속된 실존에서 벗어나 현실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탈존Ek-sistenz"에로의 이행을 경험[25]하는 것이다. 버크의 숭고론에 의하면, 그 자체로 빛나거나 가치 있는 사물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러한 웅장한 광경은 숭고의 원천이 될 수 있다.[26] 또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힘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보이면 그에 대한 관념은 웅장해질 수밖에 없다.[27] "목숨 없는 흙덩이"(251면)와 "고무로 만든 인형(人形)"(252면)에 불과했던 형식이 혼돈에서 조화로 이행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무정』에서 가장 극적인 감정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 형식의 귀에는 차의 가는 소리도 들리거니와 지구의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무한히 먼 공중에서 별과 별이 마주치는 소리와 무한히 작은 '에테르'의 분자의 흐르는 소리도 듣는다. (…중략…) 그의 정신은 지금 천지가 창조되던 혼돈한 상태에 있고 또 천지가 노쇠하여서 없어지는 혼돈한 상태에 있다. (…중략…) 옳다, 자기는 목숨 없는 흙덩이였었다. (…중략…) 지금까지 혹 자기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마치 고무로 만든 인형(人形)의 배를 꼭 누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과 같았었다.(250-252면)

인용문은 광대한 우주의 무한함 속에 천지창조의 장면을 '보는' 형식을 부조해놓는다. 미분화된 미지와 무명상태로부터 자신을 새롭게 '각성'하는 낭만적 수사는 천지의 노쇠/창조와 함께 새로운 인간의 창조에 부합하는 전략인 셈이다. 이는 물론 구사상과 구도덕으로부

25) 안성찬, 위의 책, 169면.
26) 에드먼드 버크, 김동훈 옮김,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마티, 2006, 130면.
27) 위의 책, 129면.

터 완전히 탈피한 근대인으로의 전신(轉身)을 상징하는 동시에, 숭고한 것에 근접하는 일탈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영채가 죽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천 원"에의 근심이 해결된 상황에서 분출되는 형식의 자기긍정은 우주와의 합일을 경험하는 것에 육박하도록 서술된다. 현실세계에서의 '비루한' 번민은 "별과 별이 마주치는 소리" 앞에서 말 그대로 하찮아지는 것이다. 『무정』의 또 다른 유명한 자아각성의 장면에서도 "번개같이 번쩍 보인"(111면) 영혼의 개명 순간은 아름다움과 기쁨, 희망을 선사하는 황홀경의 섬광으로 그려진다. 비루하고 하찮은 것이 반복되는 근대적 일상에서 숭고한 것이 경험되기 어렵다면, 『무정』에 수차례 나타나는 자아각성의 드라마는 숭고함에 도달하는 일종의 정신적 제의에 해당하는 셈이다.

문명진화와 관련해, 『무정』의 관심사는 민족계몽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현실적 비전이나 방법에 있지 않다. 현실 문제를 압도하는 것은 정신의 크기와 높이이다. 『무정』에서 정념의 크기는 정신적 고양 자체를 위해 전시된다. 가령, 형식의 교육관은 근대화와 탈식민이라는 당대의 이중적 과제를 함께 고려한 인재양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매몰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명적 약자인 조선이 강자인 일본, 서구를 수용해 문명개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정』 전편에서 견지된다. 『무정』에 의하면 근대의 형성기이자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1910년대 후반, 조선의 당면과제는 "문명"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명화의 척도와 방법은 무엇일까.

>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퍽 소요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에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

> 퀴 소리, 증기와 전기기관 소리, 쇠망치 소리……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390면)

어린 소년 형식은 평양에 처음 왔을 때 "대동강 위에서 '뺑'하고 달아나는 '화륜선'을 보고 놀"라지만, "그러하던 소년은 이미 죽었다. '뺑'하는 '화륜선'을 볼 때에 이미 죽었다."(244면) 형식은 이제 남대문 플랫폼에서 소요한 "문명의 소리"를 들으며, 민족의 새로운 장래를 꿈꾸는 선각자에 위치해 있다. 평양에서 경성, 이후 동경과 미국으로 이어질 박람의 여정은 이러한 "찬란한 문명"의 지향점과 모델을 적시해준다. 『무정』에서 문명화의 척도는 "철도"와 "전신과 전화", "잠항정이나 수뢰정"(243면)을 아는 것이고, 서양문명의 "철학과 예술과 경제와 산업"과 "종교"(303면)를 소화해 그 참뜻을 깨닫는 데 있다. 문명은 곧 힘이고 부(富)이며, 계몽과 주체성을 가능케 하는 근원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무정』에서 근대화는 곧 서구화이며, 서구문명은 "우리보다 우승"(304면)한 것, 불가분 "본받아야 할" 것으로 제시된다. "북해도에 '아이누'나 다름없는 종자"(461면)가 될 위험으로부터 조선민족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형식이 자각한 자신의 사명이자, 미국유학을 떠나는 이유이다. 선형과의 약혼 또한 민족구원의 청사진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숭고한 것으로서의 문명진화는 영채 대신 선형을 택한 형식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무정』에서는 즉, 서구적 문명화라는 목표 도달을 위한 열정과 신념으로서 정신주의를 재현한다. 신의 대신 유학과 출세를 선택한 형식의 무정함은 '악'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역사적 "과도기"에 처한 조선의 진화발전은 근대적 문명의 세례를 받은 청년에게 달려 있다. 무지는 계몽의 대상이 되며, 무정한 것은 유정하게 변화해간다. 『무정』의 세계는 그러한 각성과 변전의 드라마, 문명진화해갈 미래상에

의 기대를 내장하고 있다. 『무정』의 결말은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을 앞둔 시점의 낙관론으로 마무리된다. 봉건적 가치와 구습에 예속된 과거가 명백한 부정의 대상이라면, 아름다운 가상의 미래는 숭고한 것으로서의 문명진화가 다다를 소설적 귀결점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세속화: '구원'과 '돈'의 관계를 중심으로

『무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숭고 지향성이 돈을 둘러싼 세속세계로의 하강이라는 근대의 '무정한' 속성과 맞물려 나타난다는 점이다. 소설 전반부의 서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채냐 선형이냐'의 문제는 동등한 선택지를 가정하지 않는다. 『무정』의 삼각관계는 낡은 의무 대 미래의 전망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결과를 예정한다. 형식의 내적 갈등과 번민은 돈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세속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기생 신분의 영채를 기적에서 빼내올 수 있는 돈 "천 원"은 영채를 포기하는 현실적 명분이 되며, 선형과의 약혼 또한 평생의 꿈인 미국유학을 가능케 할 돈을 매개로 한다. 문명진화를 위한 숭고한 꿈과 달리, 돈이 지배하는 '무정'(無情)[28] 한 현실에 대한 한탄과 조상(弔喪)은 『무정』의 또 다른 서사를 추동한다. 단적으로 말해 영채에 대한 형식의 '무정함'은 형식의 태도에 국한되지 않는, 근대의 '무정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숭고와 세속화의 관계는 『무정』 해석에서 맞닥뜨리는 다음과 같

28) 이에 비해 이수형은 "『무정』의 제목이 자율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감정의 작용을 통해 무정한 상태에서 유정한 상태로의 발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이수형,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감정과 마음의 관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3, 326면)

은 '비일관성'의 핵심에 위치한다. 『무정』은 김동인의 지적처럼, 신도덕을 내세우는 동시에 구도덕을 찬송하고 미화하는 모순적 행동을 수행한다.[29] 숭고함에 대한 열망과 대중적 신파가 공존하고, 사회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범신론적 신비체험(황홀경)이 공존하며, 새로운 문명에 대한 예찬과 함께 영채가 표상하는 '아름다운' 의리와 자기희생이 공존하는 텍스트가 바로 『무정』인 것이다. 『무정』이 갖는 이러한 다면성은 근대성 논의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실제 『무정』의 근대성을 구성하는 요인의 하나는 근대적 생활세계를 배경으로 개인이 갖는 감정 변화와 감각적 반응들이 비교적 촘촘하고 세밀하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급박한 사건전개 가운데 젊은 청년 이형식의 감정과 내면세계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개인적 욕망이 가감 없이 토로됨은 물론, 의무(sollen)와 존재(sein)의 갈등에서 후자의 승리를 서사화한다는 점에서 『무정』의 근대성이 논의될 수 있다.[30] 단적으로 말해 형식은 영채, 선형과의 삼각관계에서 김장로의 후원(돈)을 선택하고, 영채는 김현수(돈)에 의해 유린당한다. 이광수는 '돈'과 '욕망'을 중심으로 속화되고 물화된 근대적 생활세계를 재현함으로써, 세속화 자체를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세속화란 무엇인가. 세속화는 신성한 모든 것의 탈마법화[31]와 함께, 일상적 생활세계의 범속화에 기투하는 근대성의 기본

29) 이수형, 「이광수 문학과 세속화 프로젝트」,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2, 75면.

30) 서영채는 이형식이 선형과 영채 중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를 욕망과 당위의 문제로 설정하고 욕망이 당위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 해석한다.(서영채, 「'무정' 연구」, 서울대 석사, 1992)

31) 탈마법화는 신적, 초월적, 초자연적 세력이 사라진 근대세계에서 신의 섭리가 아닌 진화의 자연법칙과 과학적 합리성, 이성적이고 자주적인 주체성을 따름으로써 기존의 성스러움과 신비함의 마법화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황종연, 「신 없는 자연」,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10, 173면 참조)

운동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샬 버만이 맑스의 표현을 인용해 '모든 견고한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라고 할 때[32], 세속화는 과거의 고정된 것이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사라져가는 근대성의 경험의 핵심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도덕적인 가치판단 너머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근대화의 세례를 받는 모든 것들의 피해갈 수 없는 운명으로, 과거의 신성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무정』의 주요장면 중 하나인 "예로부터 옳다 한 것"과 "남들이 좋다 하는 것"(252면)을 부정하는 형식의 선언은 흔히 "내 의지(意志)"의 자율성, 중요성을 깨닫는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때의 자아각성은 과거/외래의 것을 대신할 근대적 습속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삶을 지탱해온 전범을 상실한 채, '열녀전'과 '소학'은 물론 "한문식(漢文式)"과 "영문식(英文式)" 그 어디서도 삶의 근거를 찾지 못한 "과도기"에 있어, 근대인의 탄생은 표류하는 욕망에의 귀착을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무정』의 '구원'에 내재된 '돈'의 논리를 중심으로 세속화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무정』에서 구원의 문제는 얼핏 돈과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구원의 의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영채는 부친을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고 형식의 구원을 기대하며 서울로 온다. 형식 또한 "사오 년간 양육받은 은인의 따님"(31면)인 영채에 대한 구원의 의무, 책임감을 느낀다. 박진사-영채-형식이 구원의 정의관계에 속박되어 있다면, 김장로-선형-형식은 증여와 교환의 계약관계에 기초한다. 하지만 『무정』의 인물들은 구원의 의미를 보다 '근대적으로' 전유한다. 유교윤리와 전통적 인습의 거부가 이광수 문학의 출발점

32)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04.

이었던 것처럼, 영채가 받았던 '열녀전'과 '내칙'과 '소학'의 교육은 병욱을 만나 낡은 것으로 폐기된다. 이뿐 아니라 새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형식이 인정과 의리에 자신의 욕망을 양보할 리 없다.

『무정』의 첫 장면에서 선형과의 만남이 기대와 설렘으로 채색된 다면 영채의 등장은 형식을 근심과 책망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여기엔 '돈'의 문제가 매개되어 있다. 영채는 "행여나 늙으신 부친을 구원할까 하고 기생이 된 것"이지만, "기실 제 몸을 판 돈으로 부친과 형제를 구원치만 못할뿐더러 주선하여주마 하던 그 사람이 영채의 몸값 이백 원을 받아"(63면)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고 만다. 이 사건은 청량사의 유린 장면과 함께, 교환대상이 되어 자본의 체계 안에 편입된 몸값 혹은 '무정한' 돈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영채는 스스로를 화폐와 교환의 회로에서 빼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상품이었다. 영채는 자신의 수중에 평양행 기차 값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재량이 없었다.[33]

> ① 그러나 영채에게는 돈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몇 친구에게 돈 오 원을 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얻지 못하고 점심때가 지나도록 방에 앉아 울었다.(140-141면)
>
> ② "자네 돈 있나. 있거든 한 오 원 꾸이게" 하고 생각하니 이제는 돈 나올 곳도 없다. 학교에서 유월 월급은 주겠지마는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칠월부터는 형식에게는 아무 수입도 없다. (…중략…) "자, 어서 오 원만 내게." (…중략…) 우선은 마지못하여 하는 듯이 오 원짜리 지표를 내준다. (…중략…) 형식은 돈을 받아 넣고 방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입고 책 한 권을 뽑아 들고 신을 신으려고 나섰다. 이때에 어떤 파나마를 쓴 신사가 형식을 찾는다. 형식은 이마를 찌푸리더니 마지못하여 문에 나갔다. 그는 김장로와 한 교회에 있는 목사다.(288-289면)

33) 이혜령, 「'무정'의 그 많은 기생들: 이광수의 민족 공동체 또는 식민지적 평등주의」, 『상허학보』 44, 상허학회, 2015.6, 325면.

인용문에서처럼 영채와 형식에겐 돈 "오 원"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영채는 오 원을 빌리지 못해 울지만, 형식은 우선에게서 오 원을 꾼다는 점이다. 인용문 ②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②는 형식이 "오 원짜리 지표"를 빌려 평양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약혼을 제안하는 목사의 도착을 알리는 대목이다. 가난한 영어교사에 불과한 형식은 결과적으로 선형의 배경, 김장로의 돈과 지위를 선택한다.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월급 일부를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희사하는 그이지만, 영채의 출현은 형식을 새삼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이끈다.[34]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의복과 거처"의 빈한함을 자각하며, "자기의 빈한함"에 대해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게 된 것이다. 물질적인 것에의 관심을 초월한 숭고한 정신의 증표였던 "빈한함"은 이제 결핍을 환기할 뿐, 이는 곧 "영채를 구원할 자격"과 "능력" 없음으로 인식된다.

영채의 몸값 천 원은 매매와 교환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격적 가치의 하락을 예시하는 한편 형식으로 하여금 돈에 무심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아아, 천 원! 천 원이 어디서 나는가"(101면)라며 그 불가능을 재확인하고, "책에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재주 있는 학생을 극히 사랑하며 힘 있는 대로 그네를 도와주려"(98면) 했던,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과거의 금욕주의적 이상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현대 사람의 걱정의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하는 걱정이라 하였다. 돈만 있으면 사람의 몸은커녕 영혼까지라도 사게 된 이 세상에 세상 사람이 돈을 귀히 여김이 그럴듯한 일이라 하였다."(101면)의 논평 또한 앞서 말한 숭고한 꿈과의 거리를 확인시켜준다.

34) 이러한 변화는 "다른 상품들을 획득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돈을 독립적인 상품으로 인식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티니티 읽기』, 새물결, 2005, 24면)

> 갑이 삼백 원 하면, 을은 사백 원 하고, 또 병은 오백 원 하고 이 모양으로 아마 한 천 원 올라갔나 봅데다. 그러나 학감이야 집까지 온통 팔면 삼백 원이나 될는지…… 도저히 금력으로야 경쟁할 수가 없지 않소?(95면)

"금력"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고결한 의지와 정신적 이념은 더 이상 구원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무정』에서 돈은 세속화의 향방을 가늠하는 강력한 지표에 위치한다. 세속세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세속의 신으로서의 '금력'과 낡은 '의무' 사이의 갈등의 결과는 자명하다. 현대세계에서 돈은 모든 가치를 표현하는 등가물이 됨으로써 추상적 높이에서 객체들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초월하게 된다. 짐멜에 의하면, 현대적 정신은 점점 더 계산적인 정신이 되어왔다. 화폐 경제는 하루하루를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숫자로 규정하고,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환원하는 일로 소진하게끔 만들어버린다.[35] 『무정』은 구도덕의 '아름다움'과 '굳은' 신의 대신, 돈이 지배적 가치로 군림하게 된 무정하고 유동적인 세계상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형식은 영채를 자유의 몸으로 해방할 돈도 없지만, 자기 욕망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 "천 원"은 엄밀히 말해 영채와의 결혼을 전제할 때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한 것이다.

"선녀 같은 처녀" 선형에 비해, 꿈 속의 영채는 "귀신같이 무섭게 변하며" 형식을 향해 "피를 뿌린다."(176면) 선형과의 결혼은 미국 유학의 보장뿐 아니라, 성공한 부자이자 양반인 김장로를 평생 후원자로 삼는다는 뜻이다. 『무정』에서 '무정'이 문명개화 이전의 과거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돈의 사회적 지배력이 커진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36] 천 원은 개별자의 인격적 가치를 무화하

35) 게오르그 짐멜, 위의 책, 28-39면 참조.

36) 이경재,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263면.

며 모든 것을 등가화해 소유와 계산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게 된 저간의 변화를 상징한다 할 수 있다. 『무정』에서 형식은 민족의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理想)의 인(人)"으로 설정되지만, 계몽의 담론만을 펼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함은 아니되 그는 신분상승을 선택한다. 또한 평양에 가서는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 산 자를 보고 즐거워함이 옳다"(247면)고 생각한다. 영채의 시체가 대동강으로 떠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도 "형식은 슬픈 생각이 없었고, 곁에 섰는 계향을 보매 한량없는 기쁨을 깨달"(248면)는다. 그러나 『무정』에서 이러한 '무정함'은 비난되지 않는다. '타락'이 아니기에 '단죄'도 없다. 이광수는 형식의 "이기적 개인주의"[37]를 두 측면에서 '구원'한다. 내면의 자책감과, 조선의 문명발전을 위해 서구유학이 필요하다는 사회진화론적 면죄부가 그것이다. 조선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 우량한 페어의 결합이 정당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정신적 상승과 고양이라는 숭고의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일련의 세속화 과정에서 좌절되는 근대적 주체의 형상에 다름 아니다. 이 지점에서 이광수는 '모더니티의 세속적 팽창을 인류 사회의 향상, 진화나 진보로 이해'[38]했다는 진단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제 세속화의 근본조류가 『무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설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통해 살피기로 한다. 『무정』의 서사는 주지하듯 형식이 선형의 가정교사로 초빙되어 안동 김장로의

37) 권보드래는 이광수의 소설에서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이라는 화소는 이광수의 남성 주인공들이야말로 무의식 중에 '저 한 몸 편히 살아갈 도리', '이기적 개인주의'에 골몰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민족과 계몽이라는 명분을 완전히 놓지 않을 정도로 교활한 까닭에, 신분상승에 대한 여성 주인공의 욕망과 달리 남성주인공의 욕망은 타락이나 단죄를 수반하지 않는다." 고 분석한다.(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숭고」, 『센티멘탈 이광수—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322면)

38) 이철호, 「세속화 이후의 한국문학—기독교, 모더니티, 우주」, 『문학과 사회』 27, 2014.11, 450면.

집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형식은 영어교습을 위해 유월 어느 오후 선형을 만나러 간다.[39] 선형은 성공한 김장로의 딸이자 "유명한 미인"이며, 정신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우수한 인재이다. 스물넷의 "순결한 청년" 이형식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11면) 교수법의 고민 중에도 형식은 육체성에 기반한 미묘한 감상에 사로잡힌다.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고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닿기도" 할 상상을 하는 것이다. 형식의 설렘은 그러나 곧이어 "낙심"과 "비감"에 이른다. 김장로의 권세와 재산에 비해 "황금의 힘"도, "하이칼라 처자의 애정을 끌 만한 아무 힘도 없"(14면)는 자신의 처지를 새삼 자각했기 때문이다. 김장로의 집 앞에서 형식은 처음 서울에 온 "시골 사람"처럼 위축감을 느낀다. 동경유학까지 마친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시골 사람"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김장로 집에서 대접받은 "은으로 만든 서양 숟가락"과 함께 내온 한 줌 얼음을 띄운 복숭아화채와, 하숙집 노파가 끓여주는 구더기 섞인 된장찌개의 거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 둘의 거리는 『무정』에서 대체로 상하와 우열의 가치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무정』의 근대성은 무엇보다도 민족계몽의 이념과 문명진화의 이상뿐 아니라, 구체적 일상의 근거인 생활세계를 서사화하는 지점에서 획득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주목할 것은 일련의 세속화의 흐름이 『무정』 결말에 이르러 다시 계몽의 이념으로 갈무리된다는 점이다.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

39) 이 첫 만남은 이형식을 사위로 심중에 둔 김장로의 의도에 의해 계획적으로 주선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압결혼의 예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남녀가 사제지간의 관계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애정관계를 예감하게 하기도 한다.(정혜영, 「근대를 향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45면)

> 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463면)

인용문에서 작가는 권세가의 사위가 되어 미국유학을 떠나는 형식의 학비와 차비를 "조선이 주는 것"으로 표현한다. 형식의 차표에는 수해 현장의 "저기서 들들 떠는 저 사람들……아까 그 젊은 사람의 땀도 몇 방울 들"(463면)어 있는 것이다. 네 젊은이의 유학비용을 "조선"이 준 것으로, 조선민중의 땀방울이 "차표"에 들어있다는 『무정』의 마무리는, 앞서의 욕망과 애정갈등, 돈의 문제를 다시 민족의 담론으로 봉합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달리 말해 금력, 출세를 위한 개인적 욕망을 민족의 담론으로 치환한 것은 『무정』의 첫 장면이 예고한 세속화의 흐름이 끝까지 관철될 수 없었던 어려움을 암시해준다. 구사상을 부정하고 『무정』이 새롭게 표방한 것은 근대적 개인의 각성, 그의 세밀한 욕망과 솔직한 감각의 현시였지만, 이는 민족계몽의 대의 아래 '결렬'되고 '굴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숭고한 것의 완성을 위해 『무정』은 삼랑진역의 "큰 물"을 배치한다. 자연의 위력은 네 젊은이들에게 각성과 대화합의 시간을 마련해준다. 이들이 연출한 '감동적' 음악회는 사실 "그 개천들이 벌거벗은 산들의 살을 깎고 뼈를 우비어가지고 내려오는 소리가 무섭게 흘러가는 강물 소리와 합하여 웅대(雄大)한 합주(合奏)"(446면)를 지상세계에서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이들은 "개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공통한 생각"(446면)을 하게 되는데, 그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의 매개물로 설정된 삼랑진 '수해'는 모든 번민과 죄책감을 일거에 무화하는 '크기'와 '강력함'을 지닌 절대적 대상인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은 『무정』에 빈번히 나타나는 계몽의 이상과 결연한 의지가 숭고한 것에의 지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인물의 내면에 깃든 숭고함에의 열망을 살펴보았다. 『무정』의 여러 인물이 수차례 경험하는 '각성'과 '정화', '희생'과 '구원'의 모티프, 그리고 서사적 결절점마다 뿜어져 나오는 정신적 '고양'은 『무정』이 추구하는 숭고 지향성의 텍스트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문명진화를 향한 숭고한 꿈은 주로 신교육의 전파라는 선각자의 사명을 빌어 표현되지만, 이 과정에 나타나는 자기희생의 모티프는 희생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고수하려는 내면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크고 높고 정결한 정념을 추구하는 형식과 영채는 일정한 감화력을 미치며 『무정』의 여타 인물들을 압도한다. 하지만 이형식은 이와 함께 세속화의 조류 속에 돈과 출세를 위한 개인적 욕망으로 갈등하는 근대인의 면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근대적 일상세계에 침투된 세속화의 과정은 『무정』 전편을 지배하는 모더니티의 팽창을 반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엔 지식이 곧 힘이고 부(富)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작가적 신념이 매개되어 있다. 지식이 부와 힘을 얻는 수단으로 '굴절'되는 지점은 『무정』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저개발과 야만의 위기상태에 놓인 민족의 구원이라는 이념적 판타지를 위해 '지식=힘=부'라는 공식이 이광수에게는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문명세계에서 아이누와 같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진화론을 '약자'의 입장에서 재현하지 않으려면, 지식과 교육으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무정』의 계몽성의 요체이다.

공간적 좌표에 있어 북해도와 미국 사이에 조선현실이 존재한다면, 무정한 세상이 유정해지는 소원성취의 드라마는 시간적 좌표에

있어 도달해야 할 미래이다. 『무정』의 작가 이광수가 지녔던, 분명한 이상에 비해 '냉혹하게' 절하된 현실 판단의 근거는 높고 위대하고 우월한 가치를 지향했던 그의 숭고에의 집념과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2. 논문 및 단행본

김지영,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묵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3.

김종대, 「칸트의 숭고미에 대해」, 『외국문학연구』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33집, 상허학회, 2011.10.

박상준, 「『무정』의 계몽주의 재고」, 『동남어문논집』 38, 동남어문학회, 2014.

박헌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서영채, 「'무정' 연구」, 서울대 석사, 1992.

_____,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_____, 『아첨의 영웅주의: 최남선과 이광수』, 소명출판, 2011.

손유경,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4.

신성환, 「'무정'의 세 가지 연애담, 이성애와 나르시시즘—'무정' 새롭게 다시 읽기의 한 방법」, 『한국언어문화』 6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4.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에드먼드 버크, 김동훈 옮김,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마티, 2006.

오윤호, 「근대 과학지식의 재현과 진화론적 상상력」, 『한민족문화연구』 52, 한민족문화연구회, 2015.12.

이경재,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이수형,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감정과 마음의 관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3.

_____, 「이광수 문학과 세속화 프로젝트」, 『인문과학연구논총』 38, 명지대학

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2.
이영아,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 『한국학보』 28, 2002.
이철호, 「세속화 이후의 한국문학—기독교, 모더니티, 우주」, 『문학과 사회』 27, 2014.11.
이혜령, 「'무정'의 그 많은 기생들: 이광수의 민족 공동체 또는 식민지적 평등주의」, 『상허학보』 44집, 상허학회, 2015.6.
정혜영, 「근대를 향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한동원, 「칸트 철학의 숭고에 관한 연구」, 『철학』 54집, 한국철학회, 1998.3.
황종연, 「신 없는 자연」,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10.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티니티 읽기』, 새물결, 2005.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04.
장-뤽 낭시 외, 김예령 옮김, 『숭고에 대하여: 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 문학과지성사, 2005.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옮김,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Abstrsct>

The question of sublime and desire appeared in *Moo Jeong*

Park, Jin-Young

Lee Kwang-Soo's *Moo Jeong* is readable in relation to secularization in the modern period. This novel reproduces the conflict between the cause of self-immolation and individual personal desires. This paper analyses the coexistence of popular and sublime appeared in *Moo Jeong*. It is mixed with its former age and modernity in the narrative of *Moo Jeong*. Also, *Moo Jeong* well expresses coexistence of the pursuit of sublime and secular things in the modernness of the novel. Kant explains that the sublime is a psychological entity that turns daily values into trivial. It exists in the human mind to detect the idea of infinity. Lee Hyung-Sik and Park Young-Chae try to prove their high spirituality. The narrative is characteristic of the art of speaking that encourages the awakening of the ethnic ideals of civilization and of modern self. A commitment to modern times leads to an anxiety for nobility.

However, Lee Kwang-Soo describes the modern secular world, where the influence of money dominates, as ruthless through Young-chae's ransom of 1,000 won. The author understands modernity as the direction to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hrough the growth of material and wealth. After all, secularization is the

natural flow of the process of moving from pre-modern feudal society into the modern world. This paper analyses how both specific aspects of the secularization flow of money and desire and the ideal of enlightenment toward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are combined and broken, in the novel.

Key words: Lee Kwang-Soo, Moo Jeong, Sublime, Secularization, Money, Desire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